



“검투사가 된 내 모습 내가 봐도 멋있었죠”

넷플릭스 공개 '레벨 문:파트 2 스카기버' 배우나

“얼마 전 '레벨 문: 파트 2'의 격투 장면을 시사실에서 먼저 보고는 저도 모르며 '와, 멋있다'라고 외쳤어요. 제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항상 부끄러워하고 자신에게 가족한 편인데... 그만큼 격투 장면이 멋있고, 볼 만해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만난 '레벨 문: 파트 2 스카기버' (이하 '레벨 문 2부')의 배우 배우나(사진)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액션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SF 판타지 '레벨 문 2부'는 당일 오후 4시 넷플릭스로 공개됐다.

'레벨 문 2부'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1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다.

1부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제국 마더 월드에 저항할 전사들을 규합한 코라(소피아 부텔라분)는 이번 작품에선 마더 월드의 압제자 발리사리우스(프라 피)를 상대로 본격적인 전투에 나선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과 전투 장면도 그만큼 많다.

배우나는 코라와 함께하는 전자 네메시스를 연기했다. 코라의 동료 가운데 유일한 동양계인 네메시스는 한국의 전통의상인 것을 쓰고 검도복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차림으로 쌍갈을 휘두르는 검객이다.

1부에서 거대한 거미 괴수와 일대일 격투를 벌이며 뛰어난 검술을 선보인 네메시스는 이번엔 우주의 주변부 작은 위성의 평화로운 정착촌을 침공한 제국 군대에 맞서 전투를 펼친다. 배우나는 검객 연기를 하기 위해 필리핀 전통 무술인 칼리 훈련도 받았다.

그는 2부에 대해 “1부에서 깔아놓은 이른바 떡밥을 하나둘 회수하면서 매우 빠르게 전투가 전개되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과거사가 하나둘 밝혀진다”며 “화려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이 많다”고 소개했다.

제국 군대의 폭력에 아이를 잃어버린 네메시스의 아픈 과거도 조명된다. 배우나는 역동적인 액션 연기에 그치지 않고, 눈빛으로 질은 감정도 표현해낸다. 정착촌의 이름 모를 아이와 보일 듯 말 듯 우정을 나누기도 한다.

“제가 촬영장에서 발달한 편이거든요. 막 까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역배우 앞에선 네메시스처럼 ‘엄근진’ (엄숙·근엄·진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흑사라도 (아역배우의) 배역에 대한 몰입을 깨뜨릴까 봐서요. 촬영이 끝나고 그 친구가 제게 목걸이를 선물해 주더군요. 그 목걸이 지금도 하고 다녀요.”

배우나는 일찍부터 외국 영화에 출연해온 글로벌 스타다.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

즈 감독의 '공기인형' (2009)과 '브로커' (2022), 위스키기 남매 감독의 '클라우드 아틀라스' (2012), 미국 드라마 '센스8'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작품과는 달리 해외 작품에선 비현실적인 느낌의 캐릭터를 많이 연기한 것 같다는 말에 배우나는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답했다.

“제가 외국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뻘속까지 한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문화에서 우리나라는 제스처 같은 걸 흉내 내기보다는 자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는 편이에요.”

'레벨 문'의 네메시스와 같은 '외강내유' 형의 캐릭터를 주로 연기해온 것 같다는 말에는 “내가 (감정을) 참아야 관객이 슬픔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조금씩 숨겨 나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배우나는 “물론 (외강내유와) 반대되는 성향의 캐릭터도 해보고 싶다”며 “얼마 전 (넷플릭스 시리즈) '달강장'을 봤는데 너무 웃겼다. 진짜 웃기는 코미디도 해보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배우나는 넷플릭스와 인연이 깊다. '레벨 문' 외에도 넷플릭스 시리즈 '센스8', '킹덤', '고요의 바다' 등 일찍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여러 편에 출연했다.

그는 “영화도 드라마도, 플랫폼이나 채널은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좋은 작품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고 말했다.

'레벨 문'을 연출한 스나이더 감독은 '300' (2007), '맨 오브 스틸' (2013), '아미 오브 더 데드' (2021) 등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배우나는 스나이더 감독에 대해 “외계 행성이나 생명체를 구현해내는 비주얼은 놀라운 경험이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연합뉴스

전현무, TV만 들면 나오는 이유 있었네

지난해 고정출연 21건 최다...비드라마 고정출연 75%가 4050

지난해 방송인 전현무(사진)가 고정으로 출연한 TV 프로그램이 총 21편으로 모든 연예인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어 장도연과 불이 17편이고 김성주가 15편에 고정 출연하는 등 방송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연예인 대부분이 40대 또는 50대로 나타났다.

콘텐츠 화제성을 조사하는 굿데이터퍼레이션이 지난해 방영된 비드라마(파일럿 프로그램 포함) 출연자를 분석했더니 이같이 집계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현무가 21편으로 가장 많았다. 장도연·불 17편, 박나래·김성주 15편, 김구라 13편, 문세윤·김숙 11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수근·안정환·신동엽·서장훈은 10편에 출연했고, '국민 MC' 유재석은 4편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다.

이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케이블 39개 TV 채널에서 방송한 시사, 교양, 예능 프로그램 431편의 출연자 83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스포츠 중계나 음악 순위 프로그램은 제외했다.

고정출연자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편 이상의 콘텐츠에 고정 출연한 이들은 36명인데,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184편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36명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40대가 절반인 18명이었다. 50대가 9명, 30대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60대는 방송인 이경규, 20대는 가수 이찬원 각각 1명이었다.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2000년대와 비교해 최근 TV 출연자들의 연령대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굿데이터퍼레이션은 “2030 젊은 방송인 중 TV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4050 고정 출연진이 젊은 시청자도 포섭할 수 있을 만큼 트렌디한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이돌 오디션’ 계속 나오는 이유는?

시청률 0%대에도 제작 꾸준...팬덤 확보해 장래 부가 수익 목적

엠넷 ‘보이즈플래닛’, MBC ‘소년판타지’, JTBC ‘알유넥스트’, SBS ‘유니버스 티켓’. 지난 1년간 방송된 아이돌 서바이벌 중 그나마 화제가 된 프로그램들인데, 시청률은 처참하다.

이들은 모두 평균 시청률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이즈플래닛’ 그나마 상승세를 보여 자체 최고 시청률 1.2%로 종영했지만, 평균은 0%대에 머물렀다.

1월 종영한 ‘유니버스 티켓’은 첫 회 시청률 1.1%로 출발해 내내 0%대를 기록하다가 결국 0.6%로 막을 내렸다.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낮아지고 시청률도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은 끊이지 않고 있다. SBS는 ‘유니버스 티켓’이 종영한 지 약 3달 만에 시즌2 제작 방침을 공개했다. 보이 그룹 서바이벌 ‘유니버스 리그’ 지원자를 22일부터 모집해 올해 하반기 중 방송할 예정이다.

시청률이 낮아도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것은 참가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이돌로 거듭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팬덤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팝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넓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니아층에 의존하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해외 K팝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을 쓴다. 예를 들면 글로벌 오디션으로 아이돌 지망

생을 세계 각국에서 모집하고, 글로벌 팬덤의 투표를 반영해 참가자들을 평가한다.

KBS가 선보이는 아이돌 오디션 ‘메이크메이트원’ (MA1)은 글로벌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를 표방한다. 여러 나라 출신 도전자 36명이 아이돌이라는 꿈을 향해 경쟁하는 과정을 담아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요즘 아이돌 서바이벌은 내수용이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을 공략해서 글로벌 팬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방송사 입장에서 아이돌 서바이벌은 콘텐츠로서의 가치보다 사업적인 가치가 더 크다”며 “요즘은 방송만 해서 프로그램 제작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여러 가지 부가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을 통해 탄탄한 팬층을 확보한 아이돌 그룹은 좋은 부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아이돌 서바이벌 포맷을 활용한 성공 사례가 있다. 엠넷의 ‘보이즈플래닛’으로 작년에 데뷔한 보이그룹 레오메이스트원은 K팝 그룹 사상 최초로 데뷔 첫날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얻었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오디션으로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면 유닛 활동을 하는데, 몇 년 동안 매니지먼트를 맡는 계약 등을 통해 방송사에서는 여러 부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며 “아이돌 그룹을 활용해 일종의 지적재산(IP)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리극)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쁜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은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